



코리아 타운에서 가족과 지역 사업을 대체하는 또 다른 고층 빌딩

바하마 나소에 본사를 둔 수억 달러 규모의 회사 인 Vukota Capital Management (VCM)는 698 Irolo St.를 구입했으며 역사적인 코리아 타운 중심부에 150 개 이상의 아파트와 상업용 고층 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해 거의 30 년 동안 존재했던 여러 가족과 현지 엄마 및 팝 상점이 대체 될 것입니다. 지역 사회 건설로 인해 수년간 소음과 혼란이있을뿐만 아니라 건설 중 및 완료 후 교통과 혼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.



VCM의 웹 사이트는 157 개 아파트 중 18 개 주택 만 도시의 새로운 최소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않는 "저렴한 주택"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. 그들은 또한 "높이 제한이 없으며 계획 보드에서 양보가 필요 없다"고 자랑합니다.

이제 "기회 영역"프로세스가 관리되는 방식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.

지방 정부에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서 이와 유사한 발전을 중재하도록 도와주십시오.

stopsix98irolo.org